

# “자신의 신념과 마주한 루오 작품...시대 초월해 공감”

▶ 파나소닉 시오도메 미술관 수석 학예연구관 하기와라 아츠코아 인터뷰

### 루오 컬렉션 유명, 작품 260여점 소장...내년 회고전 시대마다 변화한 루오의 작품들...일본에서도 인기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 열리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에 미술애호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시는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파리 조르주 루오 재단에서 엄선한 200점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일본 파나소닉 시오도메미술관은 루오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3년 개관한 미술관은 260여 점에 달하는 루오 작품을 소장 중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의 이름을 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7개관 20주년 기념전 조르주 루오 - 모양, 색채, 하모니를 개최한다.

파나소닉 미술관 수석 학예연구관 하기와라 아츠코아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루오 작품의 특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아츠코아는 오는 25일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루오' 전 관련 세미나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시오도메미술관과 재단이 소유한 루오 컬렉션에 대해 소개해달라.

▶파나소닉 시오도메 미술관은 파나소닉 주식회사가 2003년 4월 파나소닉 도쿄 시오도메 빌딩 4층에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기업 미술관이다. 프랑스 화가 조르주 루오의 작품을 컬렉션하고 있으며 루오와 관련된 미술전이나, 파나소닉의 사업과 관련이 깊은 '건축·주거', '공예·디자인'을 테마로 한 기획전을 연간 4회 정도 개최한다. 지난 9월 말까지 총 85회의 전시회를 개최했다. 미술관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7년 루오의 작품은 풍경화 20점을 묶어 회사가 입수할 기회가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점차 작품 수를 늘려 조르주 루오의 초기부터 만년까지의 회화와 대표적인 판화 등 260여 점을 소장중이며 항상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설갤러리를 운영중이다. 대표작은 '법정' (1909) '그리스도' (1937-38), '가을 야경' (1952년) 등이다.

-루오 작품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뚜껑개 칠한 물감, 밝은 색채, 검은 뚜렷한 윤곽선, 광대나 성경 풍경이나 그리스도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그리는 점 등은 루오 작품의 특징이다. 물론 루오는 이런 특징을 가진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는 했지만 기법, 즉 유화 물감이나 수채나 이런 기법, 또 물감을 덧칠하는 방법, 그리고 사용하는 색채 등은 시대마다 변화해 초기와 만년의 작품들을 비교하면 같은 화가가 그렸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그리는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루오가 그리는 내용, 주제, 혹은 관념, 즉 루오가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내용은 일관되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관념에 접근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루오에 있어서는 조형성과 주제는 불가분한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다. 관념이나 의미나 주제에 조형작품으로서의 육체·물질은 걸친 것이 그의 회화 작품이었다.

-시대와 국가를 넘어 루오의 작품이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미술 평론가들이, 루오의 예술에서, '일반적인 것'을 찾아내 종종 루오의 작품과 일본의 수묵화 사이에서 동질성이나 유사성을 발견해 왔다. 루오 작품에서 단순해 볼 수 있는 그어진 듯한 선과 힘을 느끼게 하는 형태는 확실히 선화 등의 근세 종교 미술이나 남화 등의 특징과 겹쳐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친숙해지기 쉬운 표현일지도 모른다.

루오의 작품은 그려져야 할 '사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이란 화가로서, 그리고 천주교 신자로서 수십 년 동안 외길을 살았던 루오

의 자기 자신, 혹은 루오가 추구한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내면이나 신념과 마주하며 자기 자신을 최대한 표현한 루오의 회화에는 주제의 깊이나 무게가 필연적으로 내재한다. 그러한 깊이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비록 기록이나 서양 미술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루오의 회화에 끌리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에서 루오 작품에 대한 연구와 출판 등이 어느 정도 활발한지 궁금하다.

▶전후 일본에서는 루오의 전람회 많이 개최됐고 그때마다, 전람회 도록이 간행돼 잡지 등에서 루오 특징이 편성됐다. 또 루오와 온 가족이 교류하던 후쿠시마 시계타로와 조각가 다카다 히로아쓰 등이 특별한 추억과 함께 루오의 평전을 단행본으로 정리하는 한편 루오의 작가론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도 진행됐다. 또한 많은 저명한 문필가가 루오를 애호하고 루오에 대해 언급한 글도 남겼다. 현재의 일본에서의 루오 연구는, 루오를 동시대의 프랑스의 사회나 예술의 동향 속에서 다시 파악하는 것이나, 루오와 동시대의 예술가들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루오의 작품 중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초기 작품을 좋아한다. 루오는 후년 유화 물감을 여러 겹 칠해 묵직한 마티에르를 만들어냈지만, 그러한 표현을 획득하기 전의 비교적 얇고 유화 물감을 덧칠한 작품을 좋아한다. 투명감 있는 물감의 층에 루오의 사상과 신앙이 녹아든 듯한 표현이 보이며 주제의 깊이와 무게가 작품을 통해 전달된다. 본관이 소장한 '법정', 도쿄 아티즌 미술관이 소장한 '교외의 그리스도' (1920-24) 등은 좋아하는 작품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모습.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조르주 루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세미나

25일 전남도립미술관...이지호·양초룡·임근준 등 4명 발제

전남도립미술관은 25일 오후 2시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전 연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루오와 조우하다-조르주 루오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루오의 영향을 받은 일본과 한국미술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을 비롯해 하기와라 아츠코(일본 파나소닉 미술관 수석 학예연구관), 양초룡(담양해동문화예술촌 총감독), 임근준(미술평론가) 등 4명이 발제자로 나선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지호 관장은 '조르주 루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며'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프랑스 그르노블 2대학에서 현대미술사 박사학위를 받은 양초룡 담양해동문화예술촌 총감독은 '조르주 루오, 예술과 현실'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임근준은 '한국에서 조르주 루오란 어떤 존재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조르주 루오 전시 담당 학예사들이 직접 해설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네이버 사전예약과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일본 파나소닉 시오도메미술관 루오 갤러리. <시오도메미술관 홈페이지>



광주신세계미술갤러리에서 만나는 임남진 작가의 작품.

## 소소한 일상...다시금 주변을 돌아봅니다

임남진 'Still Life' 전, 12월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당신에게 보내는 연서(戀書)'  
곱게 접힌 쪽지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전시장에 들어서면 벽에 걸린 색색의 편지를 살짝 들춰보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누군가에게 보냈을 편지, 누군가에게 받았을 쪽지도 떠오른다. 다양한 색으로 표현된 슬픈 쪽지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을 터다.

삶의 풍경과 일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임남진 작가 초대전이 오는 12월5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스틸 라이프(Still Lif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2019년부터 작품의 변화를 꾀해 온 작가의 여정을 고고스란히 보여주는 자리다.

개성 넘치는 인물군상을 통해 시대의 풍경을 촘촘히 담아왔던 임 작가였기에 비록 작품 속에 사람은 등장하지 않지만 편지 하나에도, 푸른 하늘과 지붕에도 각각의 이야기를 부여하며 풍부한 감성을 전한다.

전시 구성도 흥미롭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업

한 작가의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천장에도 작품을 걸었고, 20여점의 소품을 한 데 모아 다양한 밤과 새벽 풍경을 느끼도록 했다.

비슷한 형식 아래 오로지 색채의 조합만으로 각기 다른 표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연서' 시리즈는 작가에게도 도전이었다. 작가는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연민·사랑·서운함 등의 다양한 감정의 높낮이를 풀어내며 작업을 완성했다.

연서에 담긴 계절은 삶의 다양한 모습, 도시 풍경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생각한 그는 때론 우연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색의 변질을 받아들이고 마치 '물감놀이'를 하는 것처럼 색채와 어우러졌다.

"이번 작업은 감정을 달리하며 색에 심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감이 화선지에 스며들 때, 다양한 색이 만나 또 다른 색깔을 만들어냈을 때 희열을 느끼곤 했죠. 화폭의 크기에 따라 면을 감당하는 에너지도 달라지더군요."

'적요' 시리즈는 푸른 새벽 하늘에 손톱처럼 박

혀 있는 달이나, 가느다란 전선줄, 뾰족 솟은 지붕과 어우러진 하늘의 풍경을 조용히 보여준다. 갤러리 소원도에 걸린 작품에서는 하늘과 함께 크레인도 등장한다. 해질 무렵 바라본 크레인은 현대인의 서글픈 육망처럼 보였고, 어저께 애잔한 마음도 들었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오월전에서 선보인 '시간의 연대'도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전시에는 또 다양한 면 분할과 색의 구성을 통해 색면 추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듯한 작품도 나왔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양한 색의 조합이다. 작가는 감정의 요동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변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색채의 변화와 연결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임 작가는 인터뷰 중 즐거움, 재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런 마음으로 작업한 작품에는 당연히 그 감정이 투영돼 있다. "오랜 시간 버티고 견디며 작업을 지속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조금은 찾은 것 같다는 그는 앞으로도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호두까기 인형' 공연 모습

## 올해도 크리스마스엔 '호두까기 인형'

광주시립발레단, 12월21일~25일 ACC예술극장2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광주시립발레단이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발레단은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까지 5일간 총 6회에 걸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펼친다. (21~23, 25일 오후 7시 30분, 24일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

독일의 작가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바탕으로 제작한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어우러진 전 2막의 발레 작품이다. 크리스마스에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로 받은 소녀 클라라가 꿈 속에서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쥐 여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자로 변신한 호두까기 인형과 과거 나라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연은 총 2막으로 구성돼 있다. 1막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역이 돼 호두까기 인형의 주제인 동심의 세계를 표현해 낸다. 2막에서는 안무자가 캐릭터를 재해석해 다른 버전과 다른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장면을 자아낸다.

올해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기존

클래식 고전 발레 틀을 유지하면서 빠른 전개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총연출 및 예술감독에는 박경숙이, 안무에는 김용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연출에는 원자승 흥익대 공연예술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또 각 회차별 클라라와 호두까기 왕자 캐스팅을 다르게 해 관객들이 공연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했다. 1회차와 5회차에는 강은혜, 보그단 M.플로피우, 2회차와 6회차에는 강민지, 박관우, 3회차에는 공유민과 우건희, 4회차에는 조희원과 이택영이 참여한다.

1997년 처음 선보인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21년간 누적 관객 5만명을 기록했으며 지난 2021년 뉴버전 안무를 제작했던 당시 6회 전석이 5분 만에 매진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대구 달빛동맹 초청 공연으로 12월 29일~31일 대구 오페라하우스 무대에 오른다.

티켓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44.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